

남북한 학자의 국어 계통 연구의 제문제

정 광
(고려대학교)

1. 서론

한국어가 Altai 제어와 친족관계를 갖고 있다는 G. J. Ramstedt의 가설은 1950-60년대 N. Poppe(1950) 및 이기문(1961) 등에 의하여 한국어의 계통연구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학설로 발전하였다. 즉 Ramstedt가 제안한 ‘알타이어족설’은 당시 러시아의 동방학자들, 특히 St. Petersburg에서 활동하던 W. Kotwicz, B. Y. Vladimirtsov, A. Rudnev, E. D. Polivanov 등에 의하여 호응되었으며 이들의 제자인 N. Poppe에 의하여, 특히 Poppe(1965)에 의하여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Ramstedt의 제자인 P. Aalto와 舊蘇聯의 V. I. Cincius 등은 아직도 알타이어족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K. Grønbech, J. R. Krueger, L. Ligeti, J. Benzing 등은 이 어족의 가설이 개연성은 있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D. Sinor, G. Clauson, G. Doerfer 등은 알타이어족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논란이 많은 어족의 가설이지만 한국어의 기원이나 계통을 살피는 데는 우선 지역적 인접성에 의하여 이들 언어와의 친족관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Polivanov(1927)와 Ramstedt(1928)에서 조심스럽게 제안된 한국어의 Altai어족 설은 Ramstedt(1957)에서 일약 한국어가 Altai어족의 四語派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이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지만 Nicholas Poppe의 알타이어연구는 알타이어학을 좀더 정밀화시켰으며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엄격한 냉전체제 속에서 서방세계 알타이어학의 명맥을 잇게 하였다.

Poppe(1960)에서는 한국어의 어휘 82개가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보다 앞서 Poppe(1950)에서는 람스테트 力作 『한국어 어원연구』(Ramstedt:1949)에 대한 書評에서 람스테트가 제시한 비교의 예 가운데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람스테트의 알타이어 계통도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Poppe(1965)에서는 자신의 알타이어 계통도 중에서 한국어에 관한 부분을 이기문(1961) 이후의 한국어 계통도를 받아드려 정밀화하였다. 이러한 한국어의 기원에 대한 소위 포페-이기문의 알타이어 계통도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風靡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매거할 수 없는 국어와 알타이어의 비교연구가 발표되었다(줄고:1993).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병제(1961)를 비롯하여 김영황(1978), 류철(1983) 등 거의 모든 논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가 단일 언어임을 주장하였고 한국어의 Altai어족 설과 신라어를 근간으로 하여 중세국어가가 성립되었다는 남한의 학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비판과 반론이 있었다. 특히 김수경(1989)에서는 이기문(1961,1967,1975, 및 1980 등)의 여러 논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판하였으며 남한의 한국어 계통에 관한 거의 모든 논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논의들의 중요한 쟁점은 Poppe(1965)에서 논의된 한국어의 Altai어 系統圖에서 原始韓國語인 韓·夫餘 공통어가 북방계제어(高句麗語로 대표되는 夫餘系諸語)와 남방계제어(新羅語로 대표되는 韓系諸語)로 분리되었다가 高麗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新羅語를 근간으로 하는 中世韓國語가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었다. 북한학자들은 본래부터 우리 민족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新羅語도 高句麗語의 연장에 불과하고 고구려어가 한국어의 형성에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계통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두 주장의 핵심적인 爭點은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와 국어의 형성 과정에서 고구려어의 위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의 차이에 있다. 포페-이기문의 한국어 계통도라던가 이기문(1973)에서 논의된 한국어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기술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언어는 서로 달

랐으며 고구려어의 위치는 高麗의 건국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중세한국어의 저층(substratum)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학자들에 의하여 남북한의 단일민족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족과 국토의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는 억측까지 곁들여져서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부각하였던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남한의 비전문가들이 북한학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국어의 계통에 관한 논의는 남과 북의 대결을 露呈하게 되었다.

발표자는 1993년 8월 28일~31일에 중국의 北京에서 열린 남북언어학자 회의에서 “남북 언어학자들의 국어사 연구에 보이는 문제점”(줄고:1993)을 발표하면서 북한 국어학자들이 갖고 있는 국어계통에 관한 정치적 의미의 부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그 동안 남한에서 논의됐던 한국어의 Altai어족 설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한국어의 계통연구가 결코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국토의 분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의도 있었던 것이 아님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또 북한학자들의 주장은 Altai어족 설을 부인하는 다른 西歐 歷史比較言語學者들의 견해나 韓民族이 古아시아族(Palaeo-Asiatics) 및 古시베리아族(Palaeo-Siberians)과 계통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舊蘇聯 및 일부 남한학자들의 考古人類學的인 견해와도 상치되는 점을 상기시켰다.

북한학자들의 견해는 韓民族이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과 접촉한 일도 없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 일도 없는 단일 민족이라는 전체 위에 한국어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古朝鮮 이후 면면하게 이어 온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였고 三國時代에도 高句麗語를 근간으로 하는 공통어가 삼국에서 공동으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언어의 분기 발달과 변천의 이론과는 거리가 먼 견해다. 심지어 북한학자들은 借字表記조차 고구려의 것이 다른 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본다.

남북한 학자들의 한국어 계통에 관한 異見은 근본적으로 한국어의 형성에 고구려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달려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기문(1972)으로 대표되는 한국어의 Altai語族說과 김수경(1989)으로 종합되는 북한 학자들의 한국어 단일기원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두

상반되는 학설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고구려어의 위치에 관하여 기왕의 학설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古代로부터 中世 한국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학자들에 의하여 비판된 고구려어와 일본어와의 계통적 관계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고구려어와 신라어

국어의 역사를 살피는 연구에서 삼국시대의 언어, 특히 고구려어의 연구는 매우 엉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현재 고구려어로 추정되어 신라어나 다른 주변 언어와 비교된 것은 주로 <三國史記> 권35, 37에 실린 80여개의 어휘 뿐이다. 이 어휘들은 地理志의 고구려 지명으로부터 추출된 어휘들로서 이기문(1967, 1968)에서 그 특징이 논의된 바 있고 박병채(1968)에서도 비슷한 수효의 고구려어휘가 논의되었다. 북한에서는 홍기문(1957)과 김병제(1961)에서 고구려어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류열(1983)에서 이두 표기자료에서 얻은 150여개의 고구려어 낱말을 소개하였고¹⁾ 실제로 이두로 표기된 264개의 지명, 인명, 관직명의 고구려어를 해독하였다.

여기서 본 발표지는 불과 100여개의 고구려어휘가 중심이 된 2000 - 1300년 전의 고구려어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한 언어학적 기술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먼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고구려어휘들은 한자를 차차하여 표기한 것이며 문장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고구려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古朝鮮에 속했던 여러 부족 국가를 통합하여 이루어진 국가다. 초기에는 수도가 滿洲지역을 轉轉하였고 지금의 평양에 都邑을 정한 것은 427년의 일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반도의 남쪽으로 이동해 온 북방 계통의 민족이었으며

1) 류열(1983/134)에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부류의 표기대상자료도 8백 수십 개를 넘지 못하는 매우 제한된 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표기자료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매우 귀중하다. 그 가운데는 고구려의 것이 150여개, 백제의 것이 100여개, 신라의 것이 약 150개 들어있다”(띄어쓰기, 철자법은 원문대로)라는 기록을 참조할 것.

이미 당시 한반도의 남부에 정착해 있던 韓系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결론이다. 그것은 비록 동일계통의 언어를 사용했더라도 상당 기간동안 접촉이 없으면 언어는 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학자들은 고구려어와 신라어가 같은 언어였음을 주장한다. 김병제(1984/24)에서는 “이처럼 세나라 인민들이 비록 나라는 갈라져있어도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았고 한가지의 말을 쓰고 살았다는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리두로 적은 사람이름, 벼슬이름 등 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당시 군종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두(頭),수(首),종(宗)>>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마라, 마로, 마라>>라 하였는데 이것은 세나라에서 공통적이었다”(띄어쓰기, 철자법은 원문대로,이하 같음)라고 하여 삼국의 언어가 동일하였음을 주장하였다.²⁾

류렬(1983)에서는 이두로 표기된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의 어휘 가운데 삼국의 언어에 공통되는 어휘를 찾아보고 이들이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결론하였다. 즉 류렬(1983/191)에 “총적으로 보면 세 나라의 사람이름, 벼슬이름, 고장이름의 리두식표기에서 볼수 있는 300개안팎의 어휘가운데서 세 나라의 자료들에 공통적으로 쓰인 것이 30개 안팎, 그밖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자료에서 20개안팎, 고구려와 신라 두 나라의 자료에서 40개안팎,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자료에서 10개 안팎, 모두 100개안팎에 이른다”라고 하여 이 시대에 세나라의 어휘가 단일어적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 이 논저에서 이두로 표기된 고구려어휘 150개 가운데 신라어와 공통인 어휘는 모두 90개로서 전체의 60%에 이르며 신라어휘 150개 가운데 고구려어와 공통인 것은 모두 80개로서 약 53%의 어휘가 공통임을 주장하였다. 김수경(1989/56)에서는 이 통계를 재인용하고 이렇게 우연히 남아있는 제한된

2) 같은 예가 류렬(1983)과 김수경(1989)에도 전재되었다. 특히 김수경(1989/100)에서는 ‘확증된 세 나라 말의 단일성’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는 각기 그 <서울>을 [徐羅伐/所夫里/徐伐(서블>서울)]로 표시했다”라는 최학근(1981)의 주장을 재인용하고 있다.

3) 류렬(1983/192)에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이두로 표기된 어휘 중에서 공통되는 어휘를 다음과 같이 표로 보였다.

자료 이외에도 상당수의 공통어휘를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세나라 말의 단일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류렐(1983)의 삼국시대 이두표기 어휘의 재구는 결코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고구려어와 신라어의 공통어휘로 예를 들은 [털]에 대한 재구는 고구려어에서는 ‘毛乙’(鐵)로, 신라어에서는 ‘毛禮, 毛祿’(인명)로 표기된 것이 “다라/다리/더러/더리/다/더/도”의 차자표기라고 보았고 고구려어에서는 지명인 鐵圓의 ‘鐵’을, 신라어에서는 ‘덜(寺)’의 표기라고 본 것이다.⁴⁾ 이러한 이두표기의 해독은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우연한 차자표기의 유사성을 확대 해석한 것이거나 ‘乙’과 ‘禮, 祿’의 음운 차이를 간과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털(鐵)’과 ‘덜(寺)’이 고대시대에 같은 음운이었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신라어휘의 30%가 고구려어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면 김수경(1989)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두 언어가 상당히 다른 언어일 수 있다. 즉 言語年代學(glottochronology)의 방법이나 어휘통계학(lexicostatistics)의 방법에 의하면 동일 기원의 두 언어가 1,000년 동안에 동일한 기초어휘를 유지할 확률은 81-85%로서 비록 신라어와 고구려어가 같은 언어로부터 분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분리된 지역에서 서로 독자적 발전을 가졌기 때문에 66%의 공통어휘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어휘총수	세나라 공통	두 나라 공통		모두
			1	2	
고구려	약 150	약 30	약 20 고구려 백 제	약 40 고구려 신 라	약 90(60%)
백 제	약 100	약 30	약 20 고구려 백 제	약 10 백 제 신 라	약 60(60%)
신 라	약 150	약 30	약 10 백 제 신 라	약 40 고구려 신 라	약 80(53%)

- 4) 류렐(1983/436)에 의하면 <三國遺事> 권3 ‘아도가 신라의 불교기초를 닦다’조에 목호자라는 중이 고구려로부터 신라의 일선 고을에 와서 그 고을 사람인 毛禮, 毛祿의 집에 굴을 파고 묵게하였고 그로부터 신라에 불교가 퍼졌다는 기사로부터 ‘毛禮, 毛祿’이 “더러/더리”의 차자표기이며 이로부터 ‘더러/더리>더리>덜>절(寺)’의 변화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城, 邑, 村>을 표시하는 삼국의 어휘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어가 ‘忽’의 차자표기를 보여주고 백제어는 ‘夫里’, 신라어는 ‘火, 伐’의 표기를 보여준다. 이로부터 우리는 <성, 읍, 촌>을 의미하는 고구려어와 신라어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고구려어와 신라어의 이러한 어휘의 유사성이 이 두 언어가 동일하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전술한 김병제(1984)가 삼국의 언어 동일성을 보여주는 예로 들었던 <<마라, 마로, 마라>>가 류철(1983)에 의하면 고구려어에서 ‘莫離支’로, 신라어에서는 ‘麻立干’으로 차자표기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어휘가 유사한 하지만 완전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찍이 역사비교언어학의 초기에 독일의 야콥 그림(Jakob Grimm)이 인구어 공통조어와 게르만어의 음운대응으로 예를 들어 제1 음운교체(erste Lautverschiebung)의 법칙을 세웠던 희랍어와 고드어의 음운 차이는 이 보다 훨씬 미세하였다. 그가 예를 들었던 희랍어:고드어의 대립쌍은 다음과 같다.

‘pous(속격 podos)’ : ‘fotus’, ‘treis’ : ‘threis’, ‘kardia’ : ‘hairto’

따라서 위와 같은 거친 어휘의 비교는 고구려어와 신라어가 동일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시대에 삼국의 언어는 史書에 나타난 기사를 면밀히 분석하는 편이 좀더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증거가 될 것이다. 김수경(1989)에서는 그 동안 남한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조사되고 한국어의 계통연구 인용된 중국 史書의 고대 한반도에 대한 기사를 혹은 誤讀한 것으로, 혹은 해석을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였으며 고대 사서의 기사를 삼국의 언어가 동일함을 기록한 쪽으로 牽強附會하고 있다.⁶⁾ 古書의 난해한 한문을

5) 신라어의 ‘火, 伐’이 [pa]를 표시하는 석차,음차의 표기라면 ‘夫里’는 음차표기로서 이 두 어휘가 동일 어휘의 방언적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두 어휘의 변화형은 매우 다르다. 도수희(1984)에 의하면 <삼국사기>에 자주 보이는 ‘所夫里’는 ‘서울’을 지칭하는 말로서 신라어의 ‘徐羅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종래의 학설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百濟故土의 방언에서 ‘夫里’는 ‘울’로 변하였다.

出)교수가 1916년에 발표한 고구려어의 數詞 4개와 일본어의 수사와의 類似性(주 7 참조)을 들었는데 이 논설은 알타이제어의 친족관계 증명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인 수사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예가 되어 주목을 끌었다. 즉 新村出(1916)에서 <삼국사기> 地理志에서 추출한 고구려어휘 가운데 ‘3, 5, 7, 10’을 나타내는 수사가 고대일본어의 수사와 일치함을 들어 일본어와 고구려어의 상호관계를 매우 긴밀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 자료는 많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친족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번 재인용되었다.

그러나 홍기문(1963), 김영환(1978), 박정문(1984), 김수경(1989) 등에서는 고구려어의 수사에 대한 기왕의 연구가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비판하고 고구려어와 일본어의 친족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필자로서도 지금의 단계에 고구려어와 일본어가 동일계통의 언어인가 아닌가는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韓半島와 古代 日本列島와는 많은 인적 교류가 있었고 적지 않은 차용어가 일본어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

4. 결론

이상 한국어의 형성에 고구려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가에 대하여 남북학자들의 상반된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알타이어족설을 주장하

谷	*tan,*tuan(旦,吞,頓)	tani
兔	*usaxam(烏斯舍)	usagi
鉛	*namə(乃勿)	namari
三	*mir(密)	mi
五	*üç(于次)	itu
七	*nanən(難隱)	nana
十	*tək(德)	tōwo

8) 고대시대에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교류가 적지않았음은 여러가지 역사적 자료가 증언한다. 발표자의 조사에 의하면 신라의 讀書三品出身科와 일본 平安시대의 三第選考 방식, 그리고 고려초기의 과거제도의 各科 出題書와 일본 平安시대의 교육과목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학문적인 교류가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출처 (1990)참조

는 다수의 남한 학자들은 고대국어 단계에 북방계 제어와 남방계 제어, 즉 고구려어로 대표되는 夫餘語, 沃沮語, 濊語는 신라어로 대표되는 韓系 제어와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해하였으며 북한학자들은 한결같이 고구려와 신라가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였고 고구려어를 근간으로 하여 오늘날의 한국어는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발표자는 이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에 앞서 현재 찾아낸 고구려어의 자료로는 어떠한 결론도 성급함을 주장하고 싶다. 오히려 현재까지 한국어의 알타이어 계통설 연구에서 보여준 실증적인 연구방법에 비하여 북한학자들의 주장이 아직도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졸고(199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계통이나 역사의 연구가 학문적 연찬을 벗어나 어떤 다른 일에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대국어 이전의 시대에 한반도에 여러 부족 국가가 있었으며 그들이 삼국으로 통합되었다가 신라의 통일에 의하여 한 국가를 형성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어의 형성도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궤를 같이 하여 이루어졌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왜곡하여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급한 과제는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어는 물론이고 북한 전역에 남아있는 고구려어의 편린들을 찾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한학자들이 그 동안 백제어나 신라어, 그리고 인접한 알타이제어와의 비교연구로 얻은 성과를 결코 과소평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용문헌

- 강길운, 「백제어의 계통론 I」, 『백제연구』 제8집, 서울, 1977.
 강길운, 「백제어의 계통론 II」, 『백제연구』 제9집, 서울, 1978.
 강길운, 「한국어와 길락어는 동계이다 I」, 『한글』 제182호, 서울, 1983.
 강길운, 『한국어계통론-개설.문법비교론』, 형설출판사, 서울, 1988.
 김방한, 「한국어 계통연구의 문제점」, 『언어학』 제1호, 서울, 1976.
 김방한, 「한국어계통연구서설」, 『동아문화』 제17집, 서울, 1980.

-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83, 서울
- 김병제, 「조선민족어의 형성에 관하여」, 『조선어학』 제3호, 평양, 1961, 37-43.
- 김병제, 『조선어학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84.
- 김수경,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출판사, 평양, 1989.
- 김영환, 『조선민족어 발전력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 김완진, 「한국어발달사(음운사)」, 『한국문화사대계』 V(언어·문학사), 서울, 1967.
- 김윤경, 『朝鮮文字 及 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 서울, 1938.
- 김형규, 『국어사연구』, 일조각, 서울, 1962.
- 김형규, 『국어사개요』, 일조각, 서울, 1975.
- 도수희, 『百濟語 研究』, 弘文閣, 서울, 1984.
- 류 렬, 「우리말이 걸어온 력사(4); 고구려,백제,신라는 글자생활도 같이하여왔다」, 『문화어학습』 2호, 1982, 13-15
- 류 렬,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사람·벼슬·고장 이름의 표기를 통하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83.
- 박병채, 「고대삼국의 지명어휘고」, 『백산학보』 5호, 서울, 1968.
- 박병채, 『고대국어학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71.
- 송기중, 「비교연구, 국어와 북방민족어」, 『국어연구 어디까지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서울, 1991.
- 송 민, 「한일 양국어 비교연구사」, 『논문집』(성심여대) 제1호, 서울, 1969.
- 이기문, 『국어사개설』(초판), 민중서관, 서울, 1961.
- 이기문, 「한국어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 V(언어·문학사), 서울, 1967.
- 이기문, 「고구려의 언어와 그 특징」, 『백산학보』 제4호, 서울, 1968.
- 이기문, 『국어사개설』(개정판), 민중서관·탑출판사, 서울, 1972.
- 이기문, 「한국말의 조상」, 『월간중앙』 3호, 서울, 1973.
- 이기문,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의 비교연구」, 『광복30주년기념 종합학술회의 논문집』(대한민국학술원), 서울, 1975.
- 이기문, 「언어학적 측면에서 본 한민족의 기원」, 『민족문화의 원류』, 서울, 1980.
- 이승녕, 「우랄-알타이어의 공통특질고」, 『어문』 2-1, 서울, 1950.
- 이승녕,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 V(언어·문학사), 서울, 1967.
- 조재훈, 「백제어언연구서설」, 『백제문화』 제6집, 서울, 1973.
- 졸 저, 『朝鮮朝 譯科 試券 研究』, 대동문화연구총서 X,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서울, 1990.

- 졸 고, 「비교연구, 국어와 일본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서울, 1991.
- 졸 고, 「남북 언어학자들의 국어사 연구에 보이는 문제점」, 남북언어학자회의 발표 요지, 북경, 1993년 8월 28일-31일.
- 홍기문,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평양, 1957.
- 홍기문, 「삼국시대의 지명과 조선어의 계통문제」, 『조선어학』 4호, 평양, 1963, 52-끝.
- 小倉進平,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東京, 1940.
-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店, 京城, 1945.
- 白鳥庫吉, 「日本書記に見える朝鮮語の解釋」, 『史學雜誌』, 第8編 第6號, 東京, 1897.
- 白鳥庫吉, 「朝鮮語とUral-Altai語との比較研究」, 『國學院雜誌』 4-2.3.5 (1914), 5-1.2.3.(1915), 6-2.3(1916), 『白鳥庫吉全集』에 재수록됨. 東京.
- 白鳥庫吉, 「言語上より觀たる朝鮮人種」, 『人類學雜誌』 30-8, 東京, 1915.
- 新村出, 「國語及び朝鮮語の數詞に就いて」, 『藝文』 第7卷 第2,4號, 京都, 1916.
- 服部四郎, 「日本語と琉球語.朝鮮語.アルタイ語との親族關係」, 『民族學研究』 13-2 「日本語の系統」, 東京, 1948.
- 村山七郎, 「高句麗語と日本語との關係に關する考察」, 『朝鮮學報』 제26호, 東京, 1963.
- Penti Aalto, “Ramstedt and Altaic Linguistics”, *Central Asiatic Journal*, 14-3, 1975.
- Penti Aalto, “Proposals Concerning the Affinities of Korean”, *MSFOu*, 181, 1982, Helsinki
- W. G. Ast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XI, 3, August, 1879.
- Dr. M. A. Castrén, *Versuch einer koibalischen und karagas-sischen Sprachleher nebst Wörterverzeichnissen aus den tatarischen Mundarten des Minussinschen Kreises*, St.Petersburg, 1857.
- Björn Collinder, “Ural-Altaiisch”, *UAJ* 24, pp.1-26, 1952.
- Ch.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1974, Paris
- Joseph Edkins, “Connection of Japanese with the adjacent continental language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XV. 1887.
- Joseph Edkins, “Relationship of the Tartar languages”, *The Korean Repository*, III, 11. 1895.
- G.von der Gabelentz, “Zur Beurtheilung des Koteanischen Schrift und Lautwesens”, *Sitzungsberichte der Königlich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1892.

H.B.Hulbert,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Dialects in India*, 1905, Seoul

Edward H. Parker, "Chinese, Korean and Japanese", *The China Review*, XIV, 4, 1886.

E. D. Polivanov, "K voprosu o rodstvennix otno eniyax korej skogo I 'altaj skix' yazikov," *IAN SSSR*, 1927.

N. Poppe, "Review of G.J.Ramstedt's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4, 1950.

N. Popp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 1960, Wiesbaden

N. Poppe,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1965, Wiesbaden

G. J. Ramstedt, "Two Words of Korean-Japanese," *JSFOu* 55, 1926, Helsinki

G. J. Ramstedt,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SFOu* 58, 1928, Helsinki

G. J. Ramstedt, *A Korean Grammar*, MSFOu 82, 1939, Helsinki

G. 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Ou 95, 1949, Helsinki

G. 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I*, Forenlehre, MSFOu, 104-2, 1952, Helsinki

G. 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II*, MSFOu 105-2, 1953, Helsinki

G. J. Ramstedt, *Additional Korean Etymology*, Collected and edited. by P. Aalto, JSFOu 57-3, 1954, Helsinki

G. 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 Lautlehre, MSFOu 104-1, 1957, Helsinki

G. 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II*, MSFOu 104-3, 1966, Helsinki

G. J. Ramstedt, *Paraalipomena of Korean Etymology*, ed. by S.M.Kho, MSFOu 182, 1982

Léon de Rosny, "Apérçu de la langue coréenne," *Journal Asiatique*, VI Sert. 3, 1864.

J. Ross, "The Korean Language", *The China Review*, VI, 1878, Seoul.

N. S. Trubetzkoy, "Gedanken über das Indo-germanenproblem," *Acta Linguistica* 1-2, Copenhagen, 1936.

[Abstract]

**On the Problems of North and South Korean Scholars' Studies on the
Genealogy of Korean Language**

Kwang Chung
(Korea University)

So far I have reviewed the two controversial opinions of the North Korean and the South Korean linguists concerning the position of the Koguryeo language in the formation of Korean. Many South Korean scholars in favor of the Altaic Language Family Hypothesis argue that the ancient Korean language consisted of two different languages, one of which was the northern dialect including four languages such as the Koguryeo language (the largest one within the area), the Puyo language, the Okche language, the Yemaek language, and the other was the southern dialect, the largest language of which is the Shinla language. On the other hand, the linguists of North Korea claim that in Koguryeo and Shinla the same language was spoken and that modern Korean is formed based on the Koguryeo language. Before evaluating which of these claims is correct I would like to turn to the scarcity of the linguistic data of the Koguryeo language. Compared with the pragmatic methodology of the South Korean linguists in the studies on the Altaic affinity of Korean, the North Korean scholars need to present still more evidences in order to support their argument. In Chung (1993) I argued that studies on the genealogy of the Korean language or history had to be performed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urpose or for the purposes. We should admit the historical fact that there had been many tribal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the ancient Korean stage, those of which had been emerged to become three kingdoms. Those kingdoms were unified by Shinla, which was connected to Koryeo Dynasty. We cannot disregard the fact that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developed hand in

hand with these historical process with those steps related with each age. The first thing we should do right now is to collect the remaining data of the Koguryeo language recorded in the old written materials, which have been found in North Korea as many as possible. Also, I hope that the linguists of South Korea achieve more academic success in the comparative studies of the Paekjae language, the Shinla language, and other adjacent Altaic languages.

접 수 일 : 2004년 4월 27일

심사기간 : 2004년 5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5일(편집위원회)